

#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을 수 있어야

29면에서 계속

학교 3학년들을 과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근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부딪치는 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. 제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. 아이들이 잘못을 했을 때 마음으로 잘 타이려 주고 싶어도 제가 너무 부족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제대로 그렇게 해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. 혼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.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몰라서 스님께 여쭙습니다. 제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아이들과 지내는 것이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지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.

**큰스님:** 강단에 설 때는 반드시 '주인공! 네가 저 아이들을 잘 이끌어 줘야 하잖아.' 하고서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고 움직여주세요. 그렇게 믿어야 해요. 당신 겁쟁이가 당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.

**질문자3(여):** 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 때문에 집에 오면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. 마음을 맡기는데도 행동을 바로 해야 될 때는 마음이 많이 조급해지는 것 같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럼 스님네들한테 물어서 잘 배우도록 해요.

**질문자3(여):** 큰스님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다름이 아니라 먼저 큰아들 혼사 때에도 스님께 여쭙 보고 주인공한테 맡겨서 자부름 잘 봤습니다. 그런데 지금 둘째 아들과 막내 딸이 있거든요. 근데 사오 년씩 사귀다가 우연히 요새 두 남매가 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어요. 항상 저는 '이렇게 오래 끄는 것도 주인공, 되는 것도 주인공, 안되는 것도 주인공이지.'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게 됐습니다.

**큰스님:** '되게 이끌어 주는 것은 너무나 없잖아!' 하고 하는 것이지요. 허허! 그것은 사람의 차원에 따라서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고, 또 스님들 아니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이지만, 그거는 막에서 이렇게도 아니고 저렇게도 아니고, 그럼 그 가운데 누가 강력하고 있습니까?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. '되게 하는 건 주인공밖에 없잖아!' 하고 그렇게 하세요.

**질문자4(남):** 작년부터 여기 와서 스님 설법 들으면서 마음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아버지 때문에 여러 번 친견도 하고 그랬는데 차도도 없고, 그냥 '네가 진짜로 있다면 병이 나을 것이다.' 이런 마음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식사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오면서도 주인공한테 '아침에 식사 몇 숟갈 드신 것 제발 토하지 않고 그냥 그거라도 소

화가 되게끔 해 달라.' 하고 '네가 진짜로 있다면 되겠다.' 하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.

**큰스님:** 그런데 말이야, 내가 생각할 때는, 본인들이 생각을 해 봐도 더 잘 알 거야.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않을 거야. 진짜로 믿는다는 사람들을 모두 가만히 보면 가짜야. 가짜가 많아.

**질문자4(남):** 너무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.

**큰스님:** 나한테 다녀가서도..., 한번 생각해 봐. 아들이 돼 가지고도 아마 한, 반도 잘 모를 거야. 하지만 그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. 그런데 달지 않아. 진짜로 믿는다는 거는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진짜로 믿어야 그 가운데 해결을 보는 거야. 내가 꼭 살아야겠으니까 이름으로 부르는 거, 그것이 아

답니다.  
**큰스님:** 하여튼 열심히 관해 주세요. 본인한테도 관하게 해야만 되겠지만 엄마가 열심히 관해 주세요. 저런 나무 뿌리가, 엄마의 뿌리나 자식의 뿌리나 똑같듯이 주인공도 똑같아요. 그러니까 '주인공, 아들이 편안하게 지내게끔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없.' 하고 관해 주세요.

**질문자6(남):** 큰스님의 가르침대로 일체 만물을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부산 신도입니다. 제가 더욱더 오래 참구를 했어야 되는데 성질이 좀 급해서 나왔지 않나 싶습니다.

**큰스님:** 아뇨, 상관이 없어요.  
**질문자6(남):**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중에 답이 나왔기

**큰스님:** 내 삶이 되니까 벌써 사람으로 인도환생 하지 않았습니까? 아주 간편하게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는 겁니다. 그 고기 한 점이 소 한 마리와 같습니다. 그러면 그것을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소가 무명을 벗고 먹을 줄 모르는 사람 앞에는 살생이 되는 거죠. 그렇기에 내가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한테는 그 살은 내 살이 되고 그 마음은 내 마음이 되고 그 생명도 내 생명이 되니 살생이 될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모든 게 바로 한 찰나에, 입에다 넣고 씹어서 넘기는 찰나에 벌써 그 무명은 벗겨지죠. 사람으로 화하니 까요.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한 찰나에 바로 무명을 벗고 환생을 하니 까요.

**질문자6(남):** 저는 좁은 소견에, 의식이 탄 데로 떠났는데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

다. 그 마음이, 우주의 마음이나 우주 속에 들어 있는 별성들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들... 모두가 마음이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모든 것을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또 생산해 내고 또 들이고 이러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를 생산할 때 팔 셋 빛을 생산하고, 거두어 들일 때 또 딱 거두어들이고, 이렇게 해서 우주가 모두 생산이 되고 작용을 하고 살죠. 한치도 빈틈없이 한 치도 쉬지 않고요. 우리가 지금 쉬지 않고 숨을 쉬듯이 말입니다.

그러니까 크고 작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마음이 크고 작다 이러는 것도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전부, 마음이 큰 분도 있고 작은 분도 있고 옹졸한 분도 있고 여러 분이 많죠. 그거를 보신다면 우주의 그 생산처도 모두가 컸다가 줄었다가, 줄었다가 생산해 내고 또 키치고 또 끌어들이고 이릅니다. 그러니까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그 작용을 하는 거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주가 이만하다고 내가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. 그러다보면 이게 한 순간에 또 작아지고 또 여러 개가 되고 이러는 데 어떻게 그걸 말로 크다 작다 하겠습니까? 우주도 한두 개가 아닌데, 허허...

**질문자6(남):**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

**큰스님:** 예. 다 됐습니까? 그런데 진짜 공부에 대해 질문할 분들은 평생시 이렇게 모일 때 하지 이런 때는 안 하는군요. 허허허... 하여튼, 여러분!

**대중:** 예!  
**큰스님:**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오신 분들을 잘 인도해 주십시오. 관하는 법도 사람마다 다르니까요. 병고가 닳았을 때 관해야 할 일이 있고, 관해야 할 일이 닳지는 대로 너무 다르거든요. 전부. 그러니까 똑바로 좀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

그리고 아까도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이러한 문제들도 있거든요. 변연히 '이렇게 이렇게, 정성스럽게, 내 마음의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죽든지 살든지 거기에 믿고 그렇게 해라.' 하면요, 꼭 가만히 보면 딱 짓하고 있거든요. 허허허... 뭐야? 그렇게 딱 짓을 해요. 나중에 그게 나았다가도 좀 저거 하면 딱 짓을 해 가지고선 더 죽게 만들어 가지고 '그렇게 관하는데도 안 낫는다.' 그러는 겁니다. 그러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니까? 그러니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관하는 거를 꼭 바로 좀 알려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

※ 위 법문은 1994년 6월 19일 국내지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. 한미음선원 홈페이지(www.hanmaum.org)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.



모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어요.  
여러분이 콧방귀 탕 끼면 탕 끼는 대로예요.  
그리고 걱정하지 말아요.  
이 세상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.  
아니, 사람의 마음 밖에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.  
또 부처님 마음과도 틀이 아니요  
우주하고도, 세상하고도 틀이 아닌데 말입니다.

냐. 그리고 또 이름이나 진짜로 믿고 그렇게 100% 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었어. 나는 이렇게 진짜로 하라고 이름 뿐이지 죽고 사는 거를 내가 대신 해 줄 순 없잖아. 아버지가 그렇다면 아들이 그걸 재료로 삼고 열심히 하되, 돌아가시든 안 돌아가시든 그걸 떠나야 돼. 그런데 앞서에도..., 이거는 내가 말할 게 아니지. 하여튼 자신들이 모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믿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면 알 거야. 엄마나 아버지가 말이야. 좀 뭐라도 뜻뜻하게 입고 오지 그랬어, 추운데...

**질문자5(여):** 저는 대구에서 왔습니다. 그런데 저의 둘째 자식이 콩팥이 둘 다 없어서 병원에서 피를 거르고 있어요. 그래서 좀...

**큰스님:** 콩팥이 없어요?  
**질문자5(여):** 예. 둘 다 없어서 일주일째 두 번씩 피를 거르거든요.

**큰스님:** 콩팥을 두 개 엮다 떼어 버렸어요?  
**질문자5(여):** 혈압 이상이 오래 돼서 녹았

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. 그것은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도 '집에도 갔다 올 수 있다.'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'그럼 왜 내가 가보지 않은 집에는 못 가느냐?' 하는 그런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심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노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

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할 하는 중에 유마힐 거사 같은 분에게 인연이 된 고기 한 점은 즉시로 천도가 된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. 그래 그 말을 가지고 혼자 참구를 좀 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. 가르침 부탁드립니다.

**큰스님:**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, 우리가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만약에 몸뚱이 안 오장 육부 속에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. 그러다보면 벼룩에게는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? 그처럼 우리가 지금 벼룩과 같다면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?

**큰스님:** 허허허... 여러분이 고기를 잡을 때에 내 살이 되지요?  
**질문자6(남):** 예.

고기 한 점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도 대답을 못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. 우주관에 대해서 큰스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? 우주가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, 과학적인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. 아직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르침을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.

**큰스님:** 그거는 마음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마음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고, 우리가 몸뚱이 하나가 우주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만약에 몸뚱이 안 오장 육부 속에 요만한 벼룩 한 마리가 들어갔다고 합시다. 그러다보면 벼룩에게는 얼마나 그 덩어리가 크겠습니까? 그처럼 우리가 지금 벼룩과 같다면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게 보이겠습니까? 그러나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

**중국농산**  
유황오리, 다슬기엑기스 강력추천!!

**유황오리**  
다슬기엑기스

스티커를 꼭!!!  
확인하세요.

보리밭과 약재 부산물, 다슬기 껍질을 유황과 함께 배합하여 먹여 키운 유황오리  
100ml\*90팩 = 449,000원

지리산과 덕유산일대의 자연산다슬기와 국내산 약재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.  
80ml\*60팩(1박스) = 109,000원

많이 구매해주셔서 이에 보답하고자  
"파격판매 이벤트 연장"

★결제계좌:  
농협 1282-17-003433  
(주) 한메소프트

★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(주)중국농산  
- 판매처: 칠성상회 (02-879-2007)

★카드결제시 홈페이지 방문  
<http://www.7-star.net>  
(네이버, 다음에서 칠성상회 검색)

지리산자락의 헛개줄기와 잎, 열매를 넣고 천연저함반수로 진하게 달였습니다.  
100ml\*60팩 = 89,000원

**탱화 청동불상 전문** [ 1,000불 3,000불 10,000불 ]

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

신중탱화

**四代傳統**

계룡산파 계보도

금호당 약효 → 보응당 문성 →  
회응당 상근 → 원만당 석윤

**해동불교미술원**  
010-6338-5167 / 010-3743-5167  
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